

“인생의 유라굴로”

행 27:1~19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택한 열두 제자 중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후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세차례를 통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사람에게 넘겨져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한 후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이탈리아로 압송되어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거센 폭풍이 바다에 휘몰라치니 바다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계속해서 천지를 뒤엎을 듯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해서 배의 기구조차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는 방향도 잡지 못하고 바람 부는대로 파도 치는대로 하늘 위로 치솟는 듯하다가 다시 바다 밑까지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토하고 정신을 잃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사경에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그 배가 유라굴로를 만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장의 교만과 선주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더라면 유라굴로의 풍랑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배가 풍랑을 만나 고난 당하게 된 것은 선장의 교만과 선주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과 탐욕이 유라굴로를 부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 교만과 탐욕은 반드시 망한다.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골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이면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분수를 뛰어 넘는 탐욕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그들은 욕심을 내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후손들은 죄악과 마귀의 노

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분수를 뛰어 넘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탐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삶은 탐심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기 욕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2.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보다 전문가를 더 믿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보다 전문가를 더 믿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였고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려야 할 사실은 전문적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3. 순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레데 섬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남풍이 순하게 불자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하면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되나 못되나 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안 좋아시거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유라굴로를 극복하는 바울의 신앙철학

분명한 소속감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김

을 받고 나온 이유는 자기 소속을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주먹만 믿고 교만해 집니다. 소속이 분명해지면 교만해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여러분과 내가 소속이 분명하면 잘못 가다가도 곧장 돌아오게 됩니다. 나침반이 있으면 길을 잘못 가더라도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마음속에 있으면 방향을 잘못 잡아 교만과 탐욕의 가다가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유라굴로를 만났다가도 다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탐심이 아닌 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로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라굴로가 다가와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바울은 유라굴로 속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바울에게는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체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주나 선장의 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위기에 가장 중요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수 만권의 장서는 세월이 흐르면 다 없어지지만 성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서고 하나님의 지식에 서고 하나님의 판단력에 섰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망할 수 없고 패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유라굴로의 혹독한 풍랑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될 수 있고 이를 피하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갈 동안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풍랑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유라굴로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여러분은 유라굴로의 풍랑의 코스를 피해 안전한 항해를 함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눔의 시간

1.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선장의 교만과 선주의 탐욕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2. 교만과 탐욕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잠 16:18) 교만과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야 1:14-15)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 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 유라굴로 풍랑을 극복하는 바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신앙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생사를 오가는 폭풍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소속이 유라굴로 풍랑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은 무엇일까요?